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 부름 받은 제자들의 권능 (마 10:1-4)

## The Authority of Disciples Who Were Called (Matt. 10:1-4)

인생의 큰 축복 중의 하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으며, 그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One of the best blessings in our life is to meet a great teacher. In the text, there appeared the greatest teacher, Jesus Christ who had called his twelve disciples, in the mankind history. Why did Jesus call his disciples? What did they have in common? What was His purpose of calling?

### 1.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 1. The disciples whom Jesus chose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1절).

“He called his twelve disciples to him and gave them authority to drive out evil spirits to heal every disease and sickness” (v. 1).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The fact that Jesus called the twelve disciples referred to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twelve tribes of Israel. Jesus appointed the twelve disciples after he prayed all through the night.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 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there were a lot people who followed Jesus, because he was a famous Rabbi. However, he chose twelve men from them and appointed them as the Apostles. Though they were not able to understand Jesus' word with their wisdom, knowledge, experience, and logic, they had faith to believe that Jesus word was a living word for their life. Taking a step further, they made a reliable confession to Jesus in faith.

### 2. 12제자들의 공통점

### 2. The common point of the twelve disciples

12제자들은 한결 같이 시골 출신들이었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The twelve disciples were native of a country, and they were not educated well. Though they seemed not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Jesus called them as a community.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12명의 사람들, 그것도 전혀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소양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하신 것은 그들의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Jesus appointed them as his twelve disciples who did not seem to get along was that he saw their changeable aspect in the future more than at the present.

### 3.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 3. The purpose of Jesus who chose and appointed the twelve disciples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The Apostle means 'one, called to be an apostle.' In other words, the ultimate purpose of Jesus who called his disciples is that he would send them out to spread his words.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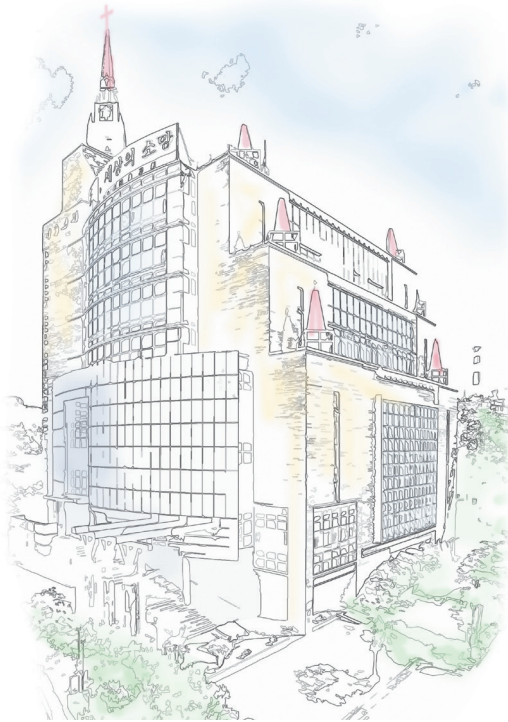
It is the same for us, Jesus calls us, and we worship and share the communion of saints, while we should be trained by his word. However, it is not our end, but our ultimate purpose is that we must go to the ends of the worl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훈련을 잘 받아서 세상의 한복판에 나아가 성도의 향기와 빛과 맛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ll of us who are called as Jesus's disciples must be trained by his word, and go into the world by giving His fragrance, light, and w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Jesus's disciple in order to give glory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3년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 9월12일(목)~13일(금)

9월12일(목)~13일(금)에 실시될 2013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바자의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이며 목표로는 **1.생명의 우물파기 2.미자립교회 돕기 3.불우이웃 돕기 4.탈북난민 돕기 5.아가페타운 지원**으로 정하였다.

지난 7월21일 주일 아침 생명의 우물파기지원 모금행사 시작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은혜로운 바자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 뒀다. 1, 2, 8층에 우물형상을 준비하고 그 취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부쳐 놓았으며 이는 성도 여러분의 헌금이 모아질수록 우물에 물이 차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헌금을 모으려는 목적 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관

심을 갖고 참여하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우물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의 마음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섬김의 기쁨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8월4일 3공의 우물을 시공할 수 있는 금액을 헌금하여 주신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물 한 모금 얻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 그들에게 성도 여러분의 정성과 그들을 위한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대로 전하여져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바자를 위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의 우물파기	~8월25일(주) 까지 / 1,2,8층 모금함 / 유년부(8/4), 초등부(8/11), 중등부(8/18), 고등부(8/25) 동참
1% 나눔 운동	8월 4일(주) ~ 8월25일(주) / 헌금 시
헌 옷 모으기	8월11일(주) ~ 8월25일(주) / 104호
특 판	8월11일(주) ~ 8월25일(주) / 1층, 8층 접수 및 판매
어린이 바자	8월25일(주) / 유년부, 초등부
사랑의 바자	9월12일(목) ~ 9월13일(금) / 전체 바자회

### 사랑의 바자 섬김위원 명단

- 지 도: 유문건 목사 / 강낙훈, 오윤걸, 정수환, 정미연
- 위원장: 노송성 장로 / 섬외,특관: 박종권 집사
- 차 장: 차도훈 집사 / 이종창, 황병석, 진승근, 정진문, 신현일
- 기 획: 김광태 집사 / 김영희, 장상국, 노창훈
- 생명의 우물 파기: 양인수 집사 / 흥 보: 정치은 집사 / 장윤기, 허 숙, 최진경
- 재 정: 송인수 집사 / 정경자, 김보경, 이경란 / 시설관리: 오유식 집사 / 스테반회
- 판매관리: 예완식 집사 / 차량관리: 오치열 집사
- 식당관리: 최차순 집사 / 원용규

## 2013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 9월 2일(월)~11월 10일(주) / 10주간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2013 (월)~11월 10일(주)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어 모집 중이다. 이번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기간은 9월 2일 각 과정별 강의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수강료 : 과목당 10,000 원)

강 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 소
빌립보서 (10주)	월, 오전 10:00-11:00	정수길 목사	602호
말라기 (10주)	금, 오전 6:00-7:00	서명철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10주)	목, 오전 10:30-12:00	유문건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10주)	화, 오전 10:00-오후 12: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롬경로대학 (10주)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12주)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701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6주)	주일, 오후 3:30-4:30	한상은 목사	802호
수학교실 초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중급반(16주)			904호(중급)

광복절 68주년을 맞이하여

# 광복절



오는 8월 15일은 광복 68주년이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반발하자 일본은 강제로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을 하였다. 일본 치하에서의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굴욕을 겪었다. 인간의 기본권은 박탈당했고, 강제 노동, 강제 징병과 징용에 시달렸고 역사 왜곡은 물론 일제의 후유증은 오늘날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온갖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애국 열사들은 굴복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날은 '빛이 되돌아 왔다'라는 광복의 의미처럼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뜻 깊고 소중한 날이다.

(사진 : 1945년 광복을 맞아 서울역과 남대문로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

### 어름 수련회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4(수)~15(목)	화방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 교역자 휴가

- 서명철 목사 : 8월13일(화)-20일(화) 주일은 제외, 대행: 한상은 목사





# 타라즈에 뿌린 복음의 씨앗

## 이준호 집사(비전트립 단장)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2013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은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운 마음으로 8월 2일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타라즈까지 태워 갈 버스가 얼마



공항으로 오지 않고 타라즈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버스는 없고, 50개가 넘는 가방과 현지 성도들과 26명이 공항 바닥에서 자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시간에 호텔 방 9개를 구해서 우리의 놀란 가슴과 피로한 육체를 쉬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긴급하게 수배한 버스를 타고 새벽 6시 30분 타라즈로 출발, 오후 4시 30분 미르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감사예배를 드리고 숙돌릴 겨를도 없이 의료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르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의료팀은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일날 미르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미르교회 청년들의 찬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이날 3명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인, 고려인, 카작인 3명이 세례를 받고 큰 감명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미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니 인근 카작인들의 진료

다.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에 우리 사역팀이 한 두명씩 지쳐서 눕게되어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선교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굳센 결의를 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진료가 소문이 나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와서 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북새통을 이루었으나 숙련되고 침착한 의료팀과 청년팀의 합동작전은 주님의 손길과 함께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요일에는 고아원 사역을 다녀왔는데, 40여명의 3-4살의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무표정하고 두려워하더니 청년팀들의 위선과 인형극을 보고 웃기 시작하더니 풍선모자를 보고 나서는 달려나와 웃고 노는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소문을 듣고 종교 경찰들의 방해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정도였습니다.

목요일엔 귀국할 준비도 해야 하므로 오후 4시까지만 환자를 받고 하였으나 찾아오는 환자가 아

요청이 쏟아져 주일 임에도 환자를 진료하기로 하고 밤 늦게까지 의료사역을 하였습니다.



침부터 줄어 있었습니다. 의료팀에서는 다소 힘들더라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하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사역은 정식 진료 환자만 786건이며 등록하지 않고 진료 받은 환자를 포함하면 1200건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하지만 이와 같은 실질적인 선교활동이 타라즈에 카작인들의 가슴을 움직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님의 긍휼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찍이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카자흐스탄에 미르교회를 설립하신 이종운 원로목사님의 높은 뜻을 겸허히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캄보디아 마하나임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 차동길 성도 (비전 2020 위원)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에 건립한 마하나임 교회가 지난 8월 4일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이갑진 장로와 제가 참석하여 현지 교우들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2부로 진행된 신앙 간증 및 새 신자 환영행사는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의 신앙 간증 발표 중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의 아내 Uk Savry입니다. 캄포츠남에 위치한 Trapang Ompil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 가정은 가난과 병, 남편의 술과 도박 등 온갖 문제로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남편과 싸우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기 위해 태국으로 간 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재울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아래서 예배를 드렸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Loek Sakhorn 집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

연스럽게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어 서울교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마하나임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성경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축복은 저희 가정

에도 내려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술과 도박을 끊고 부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서울교회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13 여름수련회 초대의 글

# 청년 여러분, 초대합니다



우일환 집사  
(청년2부 회장)

살림! 대해 깊이 이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답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청년2부에 출석하시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일예배에만 출석하고 있으신 86~79포대 청년들 모두 환영하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5일 당일 오전 9시 반까지 웨스트민스터홀(101호)로 오시면 됩니다. 수련회에서 뵙길 기도합니다.

청년2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8/15일부터 17일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에 들어야만 하는 은혜로운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뜨거운 성령 집회와 기도회, 여러 재미있는 활동들과 바비큐 파티가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청년의 때에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림! 대해 깊이 이해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답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청년2부에 출석하시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일예배에만 출석하고 있으신 86~79포대 청년들 모두 환영하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5일 당일 오전 9시 반까지 웨스트민스터홀(101호)로 오시면 됩니다. 수련회에서 뵙길 기도합니다.

## 주일 주·정차 단속 강화 성도들의 주의 필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일 주·정차 순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통보가 왔다.

성도들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주일 주·정차 단속이 유보되어 있는 삼성로 주변 주·정차시 반드시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하고,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일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4일(수)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월례기도회를 소집한다.
- 박정선장로는 한국선승가작가회 공동회장으로 추대되어 회장에 취임하였다.
- 주간식당봉사 : 리브가(8.11), 스테반회(8.18)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 25:45)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청년 3부 여름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입니다.

정수길 목사님의 특강, 은혜로운 찬양, 뜨거운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질 2013년 여름수련회를 통해 작고 약한 자들의 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울교회의 다음세대를 열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축복을 또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 되는 자리에 누구보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 오시길 소원합니다. 귀하고 축복된 수련회 기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013년 서울교회 청년 3부 여름수련회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김갑중 집사  
(청년3부 회장)

## 호산나대학,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3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호산나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진적 노인 요양보호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호산나대학의 교육내용과 일자리 창출사례 등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2013년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개발 시범사업은 미취업 발달장애인 14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시범배치하는 사업이다. 호산나대학은 시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 장애인 인건비, 사업진행비, 직무지도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호산나대학 졸업생, 재학생 중 선발과정을 거쳐 다양한 근로시간(시간제, 준전일제, 전일제)에 능력에 맞는 학생들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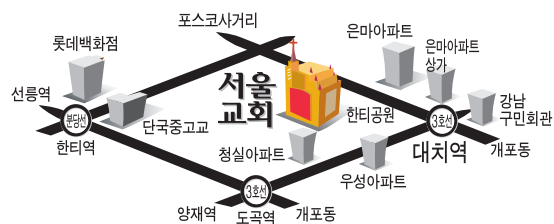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2.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계절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3. 2013 하반기 열린프로그램과 목회자세미나, 사랑의 바자가 잘 준비되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젊은이예배	오후 1시 30분
	I부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